

곤을동 — 멜 후리는 그리운 소리

홍 창 희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반세기가 흐르고 있고,
반세기 전에는 참극이 있었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4·3의 역사는
극히 일부분만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제주도에는 수많은 마을들이 4·3 진압과정에서, 즉 초토화 과정에서 시대의 아픔 속에 묻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마을들은 단지 그 마을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슴아픈 기억 속에서만 존재해 있을 뿐이다. 그 마을들은 선조들이 일궈놓은 공동체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피해 배상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못하다. 무식하여 그런 것일까?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피해가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으며, 그 치떨리는 두려움에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압력은 그것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진상규명에 대한 꾸준한 투쟁으로 이전보다 발전된 측면

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할 임무가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대중들에게 알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역사의 아픔으로 인해 묻혀진, 잃어버린 마을 중에서 화북의 곤을동을 다시 찾아 보았다. 곤을동의 옛모습을 그려보면서, 특히 해안가의 마을이면서 왜 소개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가 미흡해 실팩한 내용을 담기에는 힘겨웠다. 주로 증언자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글이 쓰여졌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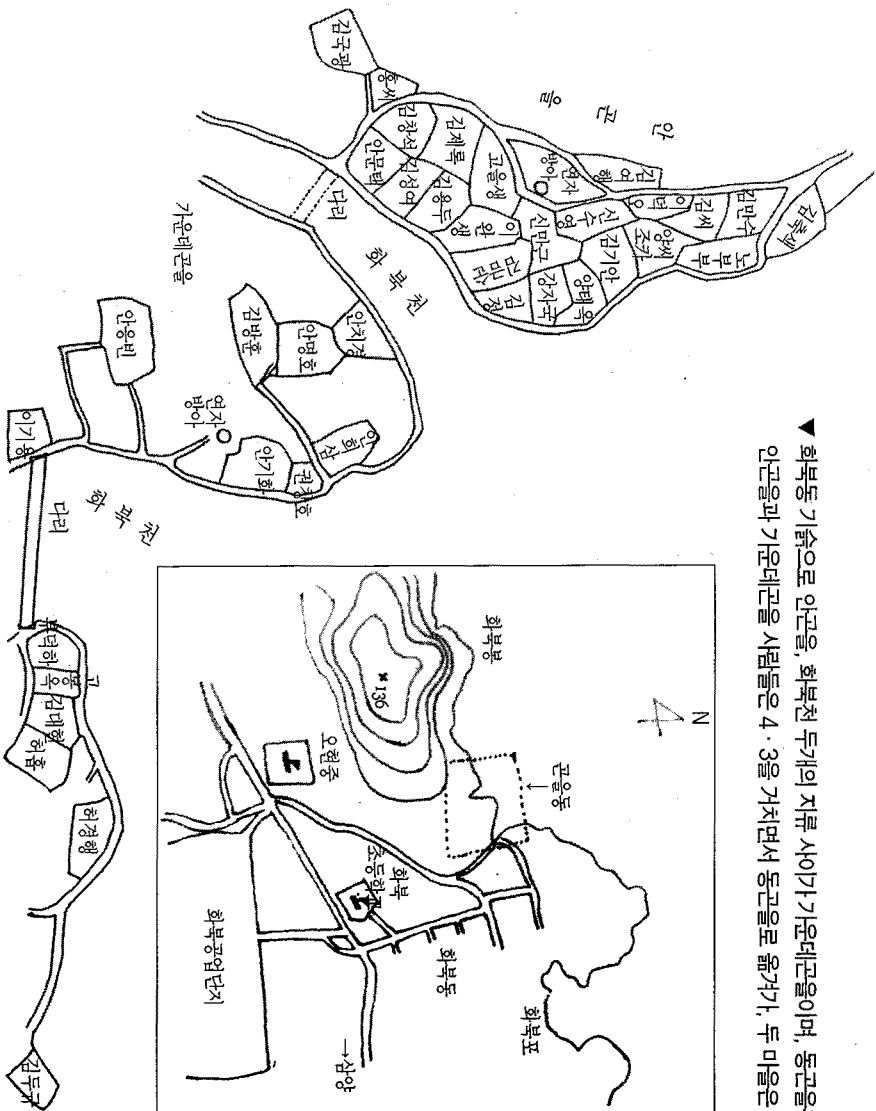
곤을동을 찾아서

우리 나라에서 마을이란 용어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 단위지역의 주민집단, 또는 그 주민집단이 모여 사는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오래전부터 동·리와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왔다. 곤을동은 그러한 기초적 단위지역에 속해 있는 소규모의 단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화북에 속해 있는 곤을동을 찾아가 보자. 제주시내에서 조천이나 삼양·봉개·함덕이라고 쓰여진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가서 오현고 정류장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해안가 서쪽으로 쪽 내려오면 곤을동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청청한 소나무가 우리를 반긴다. 이 소나무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늙어 쇠퇴해가는 고목의 모습이 아니라 천년 만년 더욱 푸르게 살아남을 힘을 발산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곤을동과는 대조적인 느낌을 안겨준다. 어느 동네의 팽나무와는 색다른 느낌을 안고 비석거리¹⁾를 지나 서쪽으로

▶ 화북동 기슭으로 안골을, 화북천 두개의 지류 사이가 기운대마을이며, 동골을은 생략하였다. 안골을과 기운대마을 사람들은 4·3을 거치면서 동골을로 옮겨가, 두 마을은 폐촌되었다.



계속 들어가면 곤을동의 옛터 그대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서쪽에 솟아있는 별도봉 품에
고이 잠든 아기의 얼굴처럼 평온한 빛을
간직한 곤을동
금방이라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내음이 풍겨날 것만 같은
곤을에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옛 집터 돌담만이 남아 있고
그 안에는 철없는 어육만이 그득하다.

곤을동은 화북 1동 서부락에 속하는 바닷가 마을을 지칭한다. 별도봉 동쪽으로 화북천이 흐르는데, 이 내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곳을 두고 '곤을'('곤홀'이라고도 함)이라 한다. '을'(홀)은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땅'이란 뜻이다. 이형상(李衡祥)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는 '고노포(古老浦)'라 표기되어 있다.¹⁾

곤을동은 화북천을 경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화북천 동쪽으로 동곤을(밭곤을=동카름), 화북천 사이에 가운데곤을, 화북천 서쪽으로 안곤을이 자리잡고 있다. 곤을동에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4·3 이전에는 60~70 가구 정도가 있었다. 안곤을이 22가구, 동곤을이

1) 제주도에는 역사가 오랜 마을마다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과 관련된 사람들의 치적을 기념하는 비가 많이 서 있는데, 이러한 거리를 비석거리라 부른다. 이곳 화북은 제주성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포구로 제주목사나 판관 등 지방 관리들이 이곳을 거쳐 부임 또는 이임하였기 때문에 이 비석거리에는 이들의 치적을 기리는 13기의 비석이 남아 있다.

2) 제주시, 『제주시 옛지명』, 세림원색 인쇄사, 1996, 251~252쪽.



▲ 50년 세월, 그 시련의 벽을 넘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옛 곤을터.

28가구, 가운데곤을에는 17가구 정도였다. 지금 곤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예전부터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고, 그 후손도 몇 명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4·3 이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할아버지와 함께 조사자들은 가운데곤을 안으로 들어섰다. 해안으로 접어들 때 우리를 반기는 것은 개짖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웬지 동네 사람들 자신을 더욱 낮설게 하였다. 4·3 진압 과정에서 남겨진 폐허의 흔적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 낮설음을 뒤로 한 채 일행은 내를 건너 곤을동 옛터를 거슬러 올라갔다.

곤을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곤을동은 화북천 하류에 위치한다. 화북천이 비석거리 부근에서 2개의 지류로 나뉘어져 바다로 합류하는데, 화북천의 2

개의 지류가 곤을을 삼분하고 있다. 화북천의 서쪽 지류의 서쪽 즉 드렁 쪽을 안곤을이라 하고, 2개 지류의 삼각지에 있는 곳을 가운데곤을, 동쪽 지류의 동쪽을 동곤을이라 한다.

▲ 화북천

화북천(禾北川)은 1653년에 쓴 『탐라지(耽羅志)』에 ‘禾北川’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주 동쪽 13리에 있고,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이나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면 급히 흘러가고, 포구에는 후풍관(候風館)이 있다”³⁾고 하였다.

화북천은 건천인데, 산에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냇물이 크게 터져 내려 ‘뱃곤을(동곤을)’을 통해 바다로 빠져 나가곤 한다. 이 때 ‘뱃곤을’에 쌓여 있던 모래와 자갈더미가 바다로 쓸려 나가 패이면 물길에 만들어지고, 또 밀려드는 파도가 쓸려 나갔던 자갈을 밀어 올려 독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던 자연적인 물웅덩이를 이루게 되고, 이는 천연 ‘원’으로 활용된다. 또 냇물이 크게 흐르면 쓸려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원이 되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곳 원은 이렇게 해서 생긴 천연원이다. 크기는 100평이

3) 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향토지』, 재송종합인쇄사, 1991, 25쪽.

4)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어로 행위를 하는 시설을 ‘원’이라 부른다. 그 원에 물이 들면(밀물일 때) 멸치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썰물일 때) 멸치는 그 원에서 빠져 나가지 못해 그것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화북동 서부락 공동어로집단 소유의 ‘원’으로 앞원이 있다. 화북 포구와 함께 돌출되어 있는 ‘남당머리코지’를 의지하여 만들어졌다. 원담은 서쪽으로는 물의 암반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서북쪽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쌓아 만들어졌다. 화북 포구와 함께 마을의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지 ‘앞원’이라 불리고 있다. 이 원은 조간대 중간층에 위치하여 반쯤 썰물에 원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완전 썰물에는 바닥이 드러난다. 바닥에는 자갈한 자갈이 깔려 있고 드물게 암반이 있다. 원담의 총 길이는 60미터이고 높이는 90센티미터 가량으로, 완전한 S자형의 곡선을 이루고 있다. 길으로는 그 폭을 짚 수 없을만큼 꺾임이 없어 바다쪽으로 비스듬하게 축조되었다. 원담 바깥 바다에는 ‘불낙여’라는 수중 암반이 있어 혹 파도가 밀려올 때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다. 현재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제주시, 『제주시 옛 지명』, 세림원색인쇄사, 1996, 520쪽)



▲ 화북천

조금 넘는 정도이다.⁵⁾

화북천은 영평경(寧坪境) 한라산록에서 발원하여 영평 마을과 월평 마을을 분계하며 바다를 찾아 흘러 내리다 막은내가 합류되면서 화북봉 남녘 기슭을 꿰뚫을 듯이 뻗어 내려와 화북봉에 닿았다가 동쪽으로 꺾이면서 화북봉 동쪽 기슭을 돌아 곤을 부락을 세 갈래로 나누며 바다를 찾아 흘러 들어간다.

일제시대 산지천(山地川)이 범람하여 남수각(지금의 동문 로타리) 일대에 피해가 크므로 산지천 상류 아래동에 속한 간드락 북쪽에서 내를 막아 별도천(別刀川 : 화북천)으로 물줄기를 돌렸으며, 이 내를 막은 곳을 '막은내'라 한다.⁶⁾

5) 제주시, 앞의 책, 522쪽

6) 화북동 운영위원회, 앞의 책, 24쪽

▲ 먹는 물

곤을동에는 먹는 물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안드렁물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 물은 안곤을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별도봉 벼랑 밑에 자리잡고 있다. 가운데곤을과 동곤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안곤을 사람들이 사용하였고, 가운데곤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치를 때만 사용하였다 한다. 지금도 그곳에는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한라산의 한 지류가 그 수맥이 끊기지 않아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곳을 안내해 준 할아버지는 마치 그리운 어미 품에 다시 안긴 아기가 젖을 빨듯 아무렇지도 않게 엮드려 그 수액을 마시고 있다. 나도 이에 감흥하여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시는데, 설탕 맛에서 느끼는 달콤함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껴지는 달콤함이 다가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덕수물이라고 하는데, 가운데곤을에 위치해 있었다. 이 물은 가운데곤을과 동곤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바닷물이 모래를 쓸어와 그 물의 숨통을 꼭 조이고 있었다.

▲ 말방아

옛날 도정기계가 없었던 시절 마을의 연자마(말방아, 물방애) 등은 동네 공동시설의 하나로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었다. 350여 년 전 문헌의 제주 풍속편을 보면, 제주에는 돌절구가 없고, 나무로 만든 절구가 있어 아낙네들 2~3명 또는 4~5명이 방아를 찧는다고 하였다. 당시는 돌로 만든 절구통이 없었던 것 같으며, 더욱 연자마는 없었던 것 같다. 할머니들 말에 의하면 나무방애(나무절구)에서 겉보리 찧는 일이 힘든 일이고, 2~3일에 한 번씩 방아를 찧었다고 하며, 말방아가 나오자 여자들이 할 일이 수월해졌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말방아의 보급은 1800년대 후반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예로 화북 서부락 당칫골목 방애는 1800년대 말에 만



▲ 안곤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식수터인 안드렁물.

들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말방아 밑돌과 굴리는 윗돌은 무게가 대단한 것이며, 이를 채석하여 다듬고 굴러오는 작업은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는 부락별로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화북 동부락에 시설하였던 방아 돌은 별도봉 밑에 있는 ‘드렁’에서 깎아 굴러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서부락 당칫골목 방아는 서부락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황사평경 아오롱내창에서 채석하였다고 한다. 아오롱내와 병풍수 근방의 돌은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이어서 방아돌 뱃돌(고래돌) 등으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한다.⁷⁾

당칫골목 방아는 1800년대 말에 만들어져, 이 돌을 굴러 오는데 서부락의 남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둥근 받침목을 깔아가면서 줄을 걸어(당시 칩을 걷어다가 이를 꼬아 줄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한다)

7) 화북동 운영위원회, 앞의 책, 53~54쪽.



◀ 어육과 함께 모진 세월 견디며
곳곳이 자리를 지킨 말방아

잡아 당기면서 굴러오고, 부인들은 점심을 하여 먹었는데, 마을의 남녀가 총동원되다시피 하였다고 하며, 아오룽에서 굴러오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한다.

말방아는 보리, 조, 산도 등을 도정하였고, 조 등의 탈곡을 하는 데도 이용하였으며, 떡쌀 가루를 만드는데 이용하여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공동시설로서 역할해 왔다.⁸⁾

그리고 말방아는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안곤을에서도 5명이 한 조가 되어 각각의 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용하였다고 한다.

8) 화북동 운영위원회, 앞의 책, 54~55쪽.

이렇게 말방아에서 한 번 도정된 곡식은 다시 ㄱ래에 갈아서 식량으로 쓰였다.

이러한 말방아는 해방 후까지만 하여도 유일한 도정기구였는데, 도정 기계가 들어오면서 밀려나게 된다. 곤을동에는 방아가 3개가 있었다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지금의 노인당 뒷뜰에 잘 보관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곤을 마을 중간 옛 자리 그대로에 방치되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어도 방애 이어도 방애 이어도 방애
이 방애 지영 혼저 쓸해영 밥행 먹어사 허컬
(문계생 할머니)

전생 곳인 이 이 내 몸 가난
다섯 폴도 새맛암서라
이어 이어 이어도 허라
간장 썩듯 풀 썩엄서라
방애 꼬슴 다지어간다
이어 이어 이어도호라
(「제주일보」 1997. 3. 14)

▲ 공회당

곤을동의 공회당은 가운데곤을에 위치했었는데, 초가로 지어져 마을 노인들이 모여 쉬고 놀기도 하며, 마을 뉴스 본산의 역할을 하여 오다가 4·3 당시 불타 없어졌다.

해방 후에는 마을 청년들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한다.

4·3 이전의 곤을동

화북은 조선시대의 화북항으로 유명한데, 영조 11~14년까지 목사 김정 이 관록 300석을 회사하여 전도민을 동원, 화북포에 선착장을 축조하고 환송정을 만들어 공사 점검소로 하였다. 이 때 목사 김정은 이 공사를 직접 감독하였고, 또한 김정은 제주도가 바람 많고 우마가 많아서 곡식에 피해가 많은 것을 보고 돌을 이용하여 피해를 막게 하였는데, 이것이 발담이 생긴 시초라고도 한다. 그후 김정은 화북에서 별세하였다.⁹⁾

곤을동의 주업은 농업이었다. 보리 종류에는 쌀보리, 맥주 보리가 있었고, 조에는 차조, 모인조가 있었다. 그리고 콩, 고구마, 팥, 메밀 등을 경작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도정하여 주식으로 삼았다. 옛날 기계가 없을 때에 보리 타작하는 과정은 보리를 작은 단으로 묶고, 큰 돌을 마당 한복판에 놓아 이 돌에 보리단을 매어 붙여 두들기는 방법으로, 이를 '가상친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일단 보리짚에서 탈곡한 것을 마당에 널어 도리깨를 친다. 이를 '마당질'이라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완전 탈곡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상을 치지 않고 보리단을 마당에 풀어 널어 마당질을 해서 탈곡하거나 마소가 있는 집에서는 마당질 대신에 마소로 밟아 탈곡하였다. 마당질의 과정은 농가에서는 매우 큰 일이고 고달픈 일로서 이 과정에서 힘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요로서 마당질 노래가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이많은 할머니들에게서 불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가상을 치거나 마당질을 하여 탈곡하는 과정이 일제에 들어와서는 '홀태(千齒)'라 하여 빗살과 같은 것으로 보리를 훑어내게 되었으며, 힘이 적게 들고 능률도 높아 홀태로 보리를 훑어 내어 일차 탈곡을 하고, 이를 마당질하여 최종 탈곡을 하여 왔던 것이다. 이후 맥타기(麥打

9) 화북국민학교 편, 『화북향토지』, 성심인쇄사, 1987, 11~12쪽.

機)가 이용되면서 보리를 홀태에서 훑어낸 것을 맥타기에 넣어 완전 탈곡하게 되었으니, 탈곡과정이 매우 쉬워지고 간편하게 되었다.¹⁰⁾

다음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은 어로활동이었다. 곤을을 중심으로 하여 ‘멸치후리’ 계가 두 곳에 있어, 안곤을 후리(일명 드렁후리)와 밧곤을 후리로 한 계가 40~50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계원은 대를 물러가며 세습하였다. 멸치떼가 물려오면 그물을 밖으로 놓고 육상에서 잡아당겨 조이는 방법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햇불(대나무를 사용)을 켜고 멸치후리 노래를 부르며 잡아 당기는 광경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전져 낸 멸치는 식용으로 팔려나갔으며, 남은 것은 재를 버무려 비석거리 앞오름 잔디밭에서 말려 거름으로 쓰기도 하였다. 멸치후리는 화북에서는 곤을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는 해안이 자갈이나 모래로 되어 있어 야 하는데, 화북경에서는 곤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¹⁾

곤을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멸치와 듄복이 많아 이것을 농사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던 것이다. 당시는 멸치가 많아 한번 나가면 계원 한 사람당 한 구덕(바구니)씩 가질 수 있을만큼 많이 잡혔다고 한다. 안곤을 후리는 벼랑으로 되어 있어 밧곤을보다 계원이 더 많았다. 멸치는 달 밝은 밤에는 들지 않았으며, 저장은 듄복 가운데에 넣어 썩지 않게 하였다.

멸치 후리는 것에 대해 『제주시 옛지명』의 내용을 좀더 보충하여 살펴 보겠다.

갈치가 빙빙 돌면서 멸치떼를 에워싸 물면 멸치떼는 하는 수 없이 해변가로 물러온다. 이렇게 물려 온 멸치떼가 원에 들면 이들을 어로 대상으로 삼았다. 어쩌다가 멸치떼를 쫓아 온 오징어를 잡는 수도 있고, 갈치와 고줄맹이를 잡는 수도 있다.

10) 화북동운영위원회, 앞의 책, 126~27쪽.

11) 화북동운영위원회, 앞의 책, 127~28쪽.

이곳에서는 후릿그물 방식의 어로 작업을 했다. 후릿그물은 한복판은 넓게 하고 양쪽 끝은 좀 좁게 만들었다. 한 쪽에 그물과 그 그물을 당길 줄을 각각 따로 실은 테우가 있어야 하니 모두 네 척이 동원된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한 척의 배가 더 있어야 한다. 이 배를 '중선' 이라 한다. '중선' 에서 멸치들이 사방으로 오는 것을 먼저 살피고 그물을 놓으라고 신호를 해준다. 신호를 하면 테우를 부지런히 저으면서 줄 가진 배는 물으로 달리고, 물에서는 그 줄을 받아 잡고 당겨 나간다.

거름으로 사용된 것은 멸치 외에도 듬북(해초)이 있었다. 사람들은 듬북을 짚어져다가 밭에 고랑을 내어 비료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곤을의 선조들은 성창을 만들어 멸치를 잡을 때 이용하였고, 테우와 장도리배를 보관하였다. 하지만 4·3이 일어난 이후 성창을 돌보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것을 보수할 사람이 없어 자유당 시절에 무너져 버린다. 지금은 굽만 남아 있다.

덧붙여 혼례 풍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신부는 쪽도리 쓰고 가마 타고, 신랑은 광목으로 말목도리한 말을 타고 갔다.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술있을 신부집까지 뿌려 놓기도 하였다 한다. 집 앞에는 나무 두 개에 보릿대와 동백꽃을 놓고, 대나무 뿌리에는 종이를 붙이고, 간판 하나에 '오늘 결혼' 이라는 문구를 썼다 한다. 그때에도 신부 들러리가 있었고, 신랑·신부만 쌀밥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디 섞은 보리쌀에 쌀 몇 방울, 팥 넣은 통보리밥에 돼지고기 석 점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삶았던 물에 몸을 넣어서 국을 끓여 먹었다 한다.

일제시대에는 어느 곳이든 어려운 살림살이에 곤궁을 해야 했고, 충알을 만들기 위해 낫그릇을 강제로 바치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별도봉과 사라봉에는 북측 바다쪽으로 개인호를 파서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알봉에는 고사포가 설치되고 모의전차가 만들어져 세워지는 등 군사시설이 있었으며, 별도봉 남쪽으로는 수평으로 50여m 이상 굴을 수없이 파서 군수물자를 비축하였으며, 이 굴을 파는데 제주도내 각지의 사람들이 징용

되어 왔고, 화북 사람들도 굴을 파는데 차출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별도 봉과 사리봉 남쪽에는 그때 파놓은 굴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¹²⁾ 15~16세만 넘으면 근로 봉사라 하여 일을 나갔다. 노무자로 일을 하면서 말을 잘 안들으면 쇠몽둥이로 때리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또한 공항을 짓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차출되었다. 전쟁에 이용하려고 비행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젊은 사람은 근로봉사라 하여 걸어서 집에서 오갔는데, 밤 10~11시가 되어야 집에 도착하여 식사하고 새벽 4시에 다시 그곳으로 가야 했다 한다.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은 노무자로 거기에 살면서 일을 하였다.

일본놈들이 장비가 없어서 삼으로 비행장을 만든 거야. 아버지가 징용으로 가면 아버지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밤에 들어가는 거야. 합법적으로 교대도 안되어. 일본놈들이 지키고 있어서. 가보니까 함바라고 해서 짬으로 막을 길게 하여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화북마을, 삼양마을 등 해서 만들었거든. 모르게 가서 아버지하고 교대해서 집으로 보내고 우리가 직접 일을 해냈는데 먹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안해. 가보니까 무엇을 먹이려고 하니 좁쌀을 방아쪼는데 껍질이 반도 안 벗겨진 거야. 그것을 삶아서 식량으로 먹이는 거지.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 목 안으로 안 내려가. 썩은 된장국을 끓여서 아무 건데기도 없이 주었는데 밥이 목안으로 안 넘어가면 국을 떠서 꿀떡 넘겼지. 약 먹듯이. 변을 불러고 하면 항문이 찢어지는 것 같애. 껍질이 거치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게 말이지. 그런 것을 먹이면서 일을 시키거든. 몽둥이 짚어서서 일하는 사람 눈치가 뭐하면 그냥 잡아다가 때리곤 하였어. 이러면서 압박을 받았지.

(김봉두, 남, 70세, 화북 서부락 거주)

그리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 학생들에게는 조선말

12) 화북동 운영위원회, 앞의 책, 139쪽.

을 한 번 쓰면 그 별로 변소 청소를 일주일 동안이나 시키기도 하였다.

덧붙여 당시 일제의 고문 방법 중의 하나를 안명호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끓여 앉혀서 구쟁기살(소라 껍질) 이디아땅(여기 가져다) 노멍(놓으면서) 못 견뎌가민 내놓은다고 어디 숨겨 놓았냐고.”

이것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다리 구부리는 곳에 소라껍질을 놓아서 다리를 구부리게 하여 아파서 견디지 못하도록 한 다음 말을 하게 하는 고문 방법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곤을동의 4·3

▲ 화북의 4·3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나면서 화북은 일본군에 빼앗겼던 토지를 재정비하고, 폐허가 된 가옥을 복구하였으며, 해안가에 쌓였던 폭발물들을 서서히 제거해 나갔다. 제주도 전지역에 걸쳐 인민위원회가 급속도로 조직되었는데, 화북은 특히 어느 지역보다 전실히 인민위원회를 조직화해 나갔다. 그러나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첨예화되어가고 마침내 4·3 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한라산 오름마다 봉화가 울려지고, 화북에서도 지서가 습격당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을 선거하는 5·10선거. 이 날 주민들 사이 투표하지 말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퍼지면서 5월 10일이 다가오자 투표하지 않고 한라산쪽으로 피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5월 8일, 9일이 되자 화북 주민들은 전부 중산간 마을인 월평, 영평(알무드네), 용강(웃므드네) 등지로 올라갔다.¹³⁾

13) 화북동운영위원회, 앞의 책, 147쪽.

『화북동 향토지』에서 이 내용을 사건별로 정리해 보았다. (148~52쪽)

[사건 1]

때로는 지금의 화북남문 시내버스 정류소 부근 일대에서 무장대의 습격을 받은 경찰관 스리쿼터가 전부 불에 타고 교전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 점차 횡수가 많아지면서 4·3이 가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던 초가을 어느날 낮에 종소리가 요란스럽게 나고, 국민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전부 운동장에 집합시켜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간 곳은 비석거리와 동제원 중간 지점 현 화북교 바른 서쪽 길에 전 리민들을 집합시켰다. 지금 양치석(梁致碩)씨 발이다. 조금 있으니 차에서 민간인 5명을 데리고 나와 리민들을 집합시킨 바로 앞 50여m 전방에 일렬횡대로 1~2m 정도 간격으로 세워졌다. 얼굴은 거문 형 짚으로 가리워져 있었다. 군인들이 M1 소총을 들고 사형수 1명에 군인 3명씩 30여m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 부대지휘자 계급은 당시 말로 게다짝(중위로 생각됨)을 단 사람이 “이들은 공비이니 사형을 한다. 너희들도 공비가 되면 이럴 것이다” 하고 사형수 1명에 25발의 총알이 날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노소할 것 없이 눈 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으며,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뉘이 나가고 서로 눈만 쳐다보며 말 한마디 없이 귀가하였다.

[사건 2]

이로부터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어디론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고 마을은 공포의 분위기와 적막감이 감돌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그해 겨울의 어느날 서부락 넓은 밭에서 서부락에 사는 김완주 부부가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죄목이 아들이 산에 갔다는 것 때문이었다. 김모 증언으로는 그 전날 그 집이 제사였는데, 아들이 집에 왔다가 제사떡을 가지고 가다 길에 흘렸다고 한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그 집을 지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건 3]

1948년 경 지서에서는 공비라 하여 이덕구의 목을 잘라 동제원에 걸어 놓았다가 그후에 다시 관덕정에 걸어 놓았다.¹⁴⁾

[사건 4]

1949년 1월 11일 화북국민학교가 무장대에 의하여 소각된다. 그리고 군경과 무장대 간에는 화북의 일주도로 변에서 전투가 가끔 벌어지기도 하였다.

[사건 5]

1949년 1월 초(음력 1948년 12월 6~7일)에 곤을동 마을이 군에 의하여 완전히 소각당하면서 주민들은 군에 의하여 죄가 있고 없고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차별 살상되고 바다에 버려지는 등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사건 6]

1949년 1월(음력 1948년 12월 10일) 이 날 낮 1~2시 경 요란한 비상 종소리가 울리고 전주민은 학교운동장에 모이라는 것이다. 리민들은 멋모르고 공포 속에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있었는데, 호명을 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나와서 열을 지으라는 것이다. 80여 명이 앞에 나가니 이들에 대한 죄명이 공비와 내통하였고 그 자식들이 산에 올라갔으니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고, 호명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다소 젊은 사람을 뽑아 철창으로 찢러 죽이라는 것이다.

[사건 7]

다음날은 새로운 지서주임 김모 경위가 부임하고, 그로부터 15여 일 후인 음력 12월 25일 다시 그 자리 학교운동장에서 15여 명이 참사를 당하였으며, 그로부터 또 20여일 후 20여 명이 참사를 당하였으니 이제 더 죽을 사람도 없

14) 김모 할아버지(72세, 화북 거주)의 증언.

는 텅빈 마을이 되어 버렸다.

[사건 8]

1949년 1~2월이 되면서 군경에 의한 토벌은 극심해지고 무차별 살상이 진행되면서 화북봉 남측에서는 매일 총성이 울려 사형장이 되던 때 화북의 김모 씨가 당시 말로 산에 올라갔다하여 전기죽을 몰살하게 되었다.

[사건 9]

어느 날 해가 별도봉 너머 저물어 갈 무렵 온 가족을 경찰 스킨쿼터에 신고 죽이러 가는데, 이를 본 동네 사람이 12~13세 되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냐고 하여 차에서 끄집어 내어 살게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父, 母, 女)은 화북봉 남측 현 원명사가 있는 근방에 끌려가 총살형을 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어머니는 살아났다.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고, 딸을 업고 왔으나 복부관통으로 2~3일 후에 사망했다. 바로 12~13세 되었던 아이가 김길랑 할아버지이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자.

“그 때 나도 차로 실려 나갈 때 김경림 경사가 ‘학생이 뭐 죄가 있느냐’고 하면서 공포탄 쏘면서 내리라고 했었어. 너무 두들겨 맞아서 똥 싸났어. 그 사람이 날 업어서 집에 와서 살아났어. 그 복수 갚으려고. 그 때 나가 환장나서 학교다니다가 학도병으로 군에 지원해서 들어갔어. 제주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군인에 지원해서 들어갔지.”

이외에도 크고 작은 죽음들이 많이 있었다.

▲ 곤을동의 4·3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곤을동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1948년 음력 12월 6일 그날은 바람이 몹시도 불었다. 앞으로 닥칠 위험과 시련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 휘몰아쳤다.

바람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킬 듯 거세게 거칠게 곤을동 마을을 에워싸

고 있었다. 노여움을 가득 안은 파도와 함께.

오후 서너시쯤 군인 1개 소대(약 42명 정도) 가량이 곤을동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누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서히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당시 집이 50호였으니까 군인들이 각각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 중심으로 죽였지. 나머지 사람들은 화북초등학교에 데려가서 가두고 다음날 동쪽 바닷가 연디밧¹⁵⁾에 데려가서 총살했어.

전혀 죄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놔지. 자기 이름도 못쓰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군인들이 와서 집에 있는 사람들 잡아놓고 물가에 세워 놓고 죽였주. 나는 키가 작고 어리니까 살려 준거라. 내가 담구명으로 이렇게 봤거든 게.

죽인 날부터 불붙이기 시작한 거라. 석유병을 집안 기둥에 항상 걸어놔있어. 석유병 꺼내서 출 한 묶음이나 조짚, 또는 보릿대를 빼가지고 끼워 불붙여서 집에 붙이는 거라. 돼지도 다 불타서 죽고, 소도 불타서 죽고. 초가집이니까 쉽게 불이 붙었주. 화북동에서 제일 피해가 커. 제일 망한 건 사람죽고 집 태우니까 의지할 곳도 없지.

곤을은 따로 떨어진 곳이니까 불을 붙여 버렸지. 사람을 못살게 해버린 거지. 원원! 싹벌겅게 집 하나도 없어. 하늘이 싹벌겅게 됐었지. 집이 벌겅게 밤낮 불 붙었어. 사람도 죽고 불도 붙었고,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라

(안명호, 남, 67세, 화북 서부락 거주)

15) 지금의 화북동사무소에서 약 700미터 북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경 이름으로, 예전에 연대(煙臺)가 위치한 '연다동산' 아래라는 데서 연유한다. '연디밧'에서 '밧'은 밑(下)을 뜻한다.

연다동산은 동사무소에서 약 650m 북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산 이름으로, 화북연대(禾北煙臺)가 세워졌다는 데서 연유한다. 곧 화북연대가 있는 동산이다. 이 화북 봉수는 동쪽으로 '원당오름'에 위치한 원당봉수와 서쪽으로는 사라봉에 위치한 사라봉수와 연락을 취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 나중에는 동쪽으로는 조천 연대(朝天煙臺)와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제주읍지(濟州邑誌)』) 여기에는 별장(別將) 6인, 직군(直軍) 18명 (『제주읍지(濟州邑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별장 6인은 변동이 없었으나 직군은 12명 (『제주병제봉대총록(濟州兵制縫臺總錄)』)으로, 다시 6명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으로 줄었다.

그냥 집에 와서 바닷가에 세워놓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총살하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지서에 잡히다가 하루 저녁 가두었다가 저 연대말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랬어. (이무화, 남, 63세, 화북 거주)

낮에 왔어. '어린이들과 늙은이 있는 사람들 불태우면 어디 가라는 겁니까' 하니 '저 동네 불 아니 탄 동네 가 살라'고. 집에 불이 와랑와랑 바람에 모두 타 버리고. 초여섯날 제사라. 난 촌에서 사촌 오빠 각시가 집 불붙이니까 우리 집을 빌려 왔어. 신고해서 오다 보니까, 10명을 세워 놔었는데 집에 가 보니 시어머님이 야기 업어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옵니까?' '저 국군이 와서 아들을 잡아가지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나가 보니 완생이하고 축색이는 물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올라오고. 바닷물에 세워놔서 죽여 버리니까. 각시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끌어다가 바닷가 옆에 가마니 덮어서 봤다가 묻었주. 세 살난 야기 안아서. 대풍부는 날이라. 바닷가 옆이니까 바람은 세고 해서 집이 금방 타 버렸주. 22가구 다 불 붙었어. 사람은 잡히다가 저 가운데 동네 세웠다가 불붙었지. 용두형도 완생이와 한 날에 죽었주. 그 집이 이틀에 세 명 죽어서 아버지, 큰 아들, 며느리. 큰 아들만 첫날 죽고. (문계생, 여, 86세, 화북 서부락 거주)

첫날부터 불을 태우기 시작했어. 우리 집은 4429번지였는데 둘째날 타버렸어. 걸리면 죽을까봐. 보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가택수색하잖아. 집에 있어 났지. 눈은 한 방울씩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지. 집 옆 집이니까 우리 집을 미심쩍어 생각하지 않은 거지. 올라가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총소리가 팡팡 났어. 뒷날 들어보니까 바닷가 옆에 세워서 죽였다는 거야. 거기서 죽이다가 뒷날 모살불 연디밧에도 곤을 사람들 데려다가 죽이고 했지. 곤을 3동네가 75~6세대였어. 좀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오라고 했었어. 나도 숨어야 될건데 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 문을 단단하게 잠겨버리니까 문을 못 열었지. 그 순간에 문 열렸으면 죽었지. 문이 안 열어지니까 살아진거지. 봤으면 나오랜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지. 특히 안곤을 여자와 남자고 전멸하다시피 했어. 15명 이

상 죽었어. 나도 살려고 밖에 나가지 못했거든. 불붙이는데 우리 집 창문에 불덩이가 들어왔지. 우리 집은 뒷날 불태웠지. 죽이면서 불붙였지. 말해도 몰라. 죽은 사람은 김봉두, 김자운, 이완성, 민반 양씨 조카, 이덕오 등 잘 생각이 안나. 우리 집안에서 죽은 사람은 없고, 그후 죽었지. 산에 올라갔다가 귀순해서 육지 정역 가서 죽었지. 17세부터 55세까진 보이면 죽여 버렸어. 지금처럼 취조하고 말이나 물어봐서 죽이지 않고 ‘이거다, 폭도새끼다’ 하면서 죽였지. 왜 죽였는지는 잘 모르지. 살아남은 걸 보니까 젊은 사람은 나하고 여촌 형님은 막지키러 오니까 살아나고, 두 세 사람밖에 없었어. 나도 목숨이 기니까 산 거지. 전쟁, 전쟁해도 그런 전쟁이 없어.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자살해 버리지. 나는 아파서 항상 환자로 있었지. 환자라고 하여 살아났지.

(김모, 남, 72세, 화북 거주)

이들의 증언에 따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벌대들이 가택 수색하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오라고 하였다. 사람들을 끌고 나오면서 주민들의 집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중에 젊은 사람들 약 10여 명 가량을 곤을동 앞바다에 세워놓고 총살시키고, 나머지 남자 어른들을 중심으로 줄로 묶어서 화북초등학교(당시 지서)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연대말 바닷가에 데려가서 총살을 시켜버린 것이다. 노인당에 있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직접 들여보자

초여섯날은 아주 추웠는데 어두워갈 때에 아이 지성 들일려고 나와 보니까 안곤을에 불이 붙고 있었주. 앞이 흰하게 보이는 곳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해서 중간중간에 서 있었주. 안곤을에는 군인들이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주. 날이 어두워가니까 가택수색하여 집에 있는 남자는 모두 잡아다가 학교에 가뒀다가 죽여 버린거주. 지서에는 웅원대(서북청년단)가 순경과 합해서 살아났지.

그 때(7일) 양반 큰 아들이 따라왔주. 우리 집에 양반 아들이 와서 집에 있

는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렀주. 양반 아들이 시에 살았주. 양반 아들 형(용운)이 동부락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폭도 손에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양반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해서 곤율이 망한 거라.

뒷날 아침(7일)은 이제 딱 목을 지켜서 서부락 마을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곤율에도 못 나오게 했지. 총으로 무장한 민보단들을 세워서 연대 밑에 가서 총질하면서 물에 들어가게 했지.

동곤율에 불 붙이면서 가뒀던 사람들을 연대 밑에서 죽이고 하니까 그 두어 시간 내에 목을 지켜서 가도 오도 못하게 사람을 금했었지. 물 옆에서 죽이니까 물이 들면 영장이 내려가고, 물이 빠지면 올라오고.

첫날 즉 6일은 곤을 중에서도 안고율과 가운데곤율을 불태우고,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10명 이상을 총살했다. 그때 죽은 10명 모두를 정확히 밝히긴 힘들지만 증언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김축색, 김봉두, 이완성, 민반 양서방 조카, 여춘 양서방 아들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나머지 사람들을 총살시킬 때 마을에 있던 토벌대들은 동곤율까지 불태웠다. 이 날 죽은 사람들은 김기만, 김순현, 김자윤, 김정, 안치수, 안치용, 이기봉, 이덕오, 허흠 등이었고, 명도암에서 이주해 온 사람도 있었다 한다.

첫날 곤을 앞바다에서 총살당한 시신들은 안명호 할아버지가 직접 수습하였다고 한다.

낮에 군인들이 죽이고 함덕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삼들을 몇 개 가져가서 그 밤에 야간작업한 거주. 발구석에 뇌서 흙만 씌워버린 거라.

▲ 돈 때문에 살아난 사람

우리도 그 때 죽을뻔 했어. 우리도 오누이가 있었어. 우리 오라버니가 장사

를 했었주. 일본가서 그릇을 가져와서 안인택이 하고 그릇 장사를 해났어. 그
 릇을 여기서 팔았었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숨겼지. 우리 참, 돈 쥐서 살긴 살
 았주. 그 사람들이 안곤을로 왔지. 그 사람들이 헛성거리, 남문 쪽 차길에서
 차가 넘어가니까 무엇으로 맞쳐서, 그렇게 해서 곤을에 어떤 사람이 달아나서
 그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화를 입힌 거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어두울 때 안곤을에 불붙이고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돈을 담아서 일본에 갈려고 일본돈과 한국돈 또 증명도 해서 놓을 때주. 거
 우리 돈만도 아니주. 안인택이네와 동아리해서 한 돈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작은 방에 났다가 부엌에 큰 찬장이 있었는데 그 찬장 안에 그냥 담아버렸어.
 담아서 쑥 밀려놔서 있는데 두 명이 와서 “나와”하니까. 우리 오라버니는 수건
 으로 이마를 감고 누웠다가 아프다는 핑계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오니까 가
 슴에 총대고 하나놈은 바깥채에 갔는데, 나가 이불을 보자기에 묶어 벽장 위
 에 났었는데 “이거 산에 올릴려고 묶었지” 하니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이
 이불 입자는 저 안에 있다”고 했지. “저 안에서 무엇 하지.” “밥합니다.” 난 밥
 을 했지. 저녁하는 핑계해서. 불을 지피 밥을 하는데 달려와서 “저 이불 입자
 나” 하니까 “맞습니다.” “뭐하냐” 해서 “밥합니다” 했지.

소도 길렀었는데 소막도 열라고 해서 여니까 소만 있어 그냥 놔두었는데,
 한 놈이 찬장 아래를 굽어서 보았어. 굽어 보아서 무언가 있는 거 같아서 총으
 로 흔들었는데, 끈이 감아져 나와서 보니까 “이거 뭐냐.” “돈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펼쳐 보라고 해서 보니 일본돈, 한국돈, 증명이 있어. “이거
 무슨 돈이냐” “저기 있는 거 우리 오빠데 그릇을 팔아서 다시 그릇을 가지러
 일본을 갈 때 쓸려고 한 돈입니다.” “왜 여기 났어” 하니까 핑계해서 “산에 사
 람 무서워서 산에 사람 와서 가져갈까봐 숨겼습니다” 하니 두 사람이 의논한
 이후에 “이 돈 가만히 놔둬.” “알았습니다.” “가자 가자” 해서 우리 오누이한테
 는 꿈쩍 말고 있을라고 했어. 그렇게해서 우린 안 나갔주. 안 나갔는데 나중엔
 오라버니는 옷 갈아입고 “지서에 가겠어” 하고, 나는 마당에 나다니다가 한 사
 람이 언뜻 봐서 “이리 와봐” 해서 나가니 가운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주랑주랑

줄로 묶어져 있었주. 아는 사람 옆에 가서 있는데 그 돈 본 사람이 “뭘하러 왔어?” “저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하니깐 “가라. 빨리 나가” 그렇게 해서 집에 와 버렸지. 집에 있는데 오라버니는 지서에 갔다가 다시 왔지.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보내고 두 사람이 와서 “돈 줘” “가져가십시오.” 내어 놓으니까 두 묶음을 가져갔지.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만약 얘기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린 돈 주어서 살아났주. 그 때 잡아간 사람들을 뒷날 동쪽 바닷가에 가서 죽이고 불붙여 버린거주. (안봉근, 여, 73세, 화북 거주)

그렇다면 중산간 마을도 아닌 해안 마을을 토벌대들이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지만 자료에 간략하게 나온 내용과 당시 곤을동에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밖에 없다.

『제주민중항쟁 I』¹⁶⁾을 살펴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49. 6. 27 토벌대, 화북서동 습격

유격대의 화북지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토벌대는 화북서동(고늘동)을 소각하고 유격대원 안치응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면서 부락내의 안씨 혈족 17명과 이주열(오현학생)을 비롯한 그의 8촌까지의 친척을 학살.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항쟁사 — 240)

위의 내용을 보면 날짜가 잘못 파악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1948년 음력 12월 6일이다. 그리고 소개 이유가 유격대의 화북지서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화북지서 공격은 곤을동이 소개된 이후이다. 또한 유격대원 안치응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였다고 나타나 있지만, 중

16) 아라리 연구원, 『제주 민중항쟁 I』, 소나무, 1988, 189쪽.

언에 따르면 곤을동에는 유격대라고 지칭할 만한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 한다. 마지막으로 안씨 혈족과 이주열을 비롯한 8촌까지 학살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안씨만이 아니라 곤을동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던 것이다.

다른 자료¹⁷⁾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피해지역 — 화북동 속칭 ‘모살불’

피해일자 — 48. 12. 7(음)

피해내용 — 화북동 연대동산 동쪽 바닷가 속칭 ‘모살불’이라는 지역에서 곤을동 주민 12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이 있었다. 군인과 경찰은 MI 소총으로 주민들을 몰에 들어가라고 협박하여 — 당시는 밀물일 때였음 — 주민들을 사살시킨 것이다.

이런 이유는 한길가에서 무장대가 경찰차를 부숴버리고 곤을동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색출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한다.

위의 내용은 곤을동 피해 주민의 신고에 의해 적혀진 것으로 앞의 자료(『제주민중항쟁 1』)와는 차이가 난다. 즉 곤을동 주민들을 학살하고, 집을 소각한 이유를 무장대가 경찰차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화북동의 4·3’에서 무장대와 군경의 전투가 도로변에서 가끔 있었다는 내용과 상통하리라 생각한다.

당시 곤을동에 살던 주민들의 증언을 좀더 들어보자.

김충희 도지사 때라. 군차가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뒤에서 쫓는데 병에 휘발유를 담아서 화염병 만들어 그걸 던져 가지고 폭발시켰지.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이 한 사람 살았었는데, 어디로 들어가는가 망을 보니까 전부 다 위로

17)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 피해조사 1차보고서』, 1995, 521쪽.

도망가다가 발자국 하나가 곧을로 났었어.

(이무화)

햇성거리라고 남문으로 조금 돌아가는 쪽에 산사람들이 복병을 했다가 군 인차가 넘어가니까 습격을 해버린 거라. 다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았어. 그 사람은 죽은 채 했다가 산사람이 곧을에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주. 그것은 그 날 아침인가 하루 전날인가 그랬지. 우리도 들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폭도 마을이다' 하여 포위한 것이지.

(김모)

신배근씨(남, 45세, 화북 1동 거주)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화북 남문의 주유소쪽, 예전에는 밭이었는데 산사람들이 위 아래서 군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군인들과 붙어 싸웠는데 산사람이 곧을로 도망가니까 "이 동네는 폭도 동네다"라고 하여 불 붙이고 사람들을 사살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할머니들의 증언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추정하건대 12월 6일 오전 또는 그 전날 무장대들이 군인차를 못지나가게 돌을 쌓아 막고 서로 교전하였는데, 그 중 무장대 한 명이 곧을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군인이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장대에 대한 보복으로 곧을동 주민들을 사살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곧을동 주민들이 사살되고, 곧을동이 불타게 된 원인은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원인은 무장대의 화북지서 습격에 대한 보복과, 아울러 무장대가 군인차를 부숴버리고 곧을로 도망쳤다는 이유이고, 이차적인 이유는 곧을동이 화북에서 좀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가 힘들고, 지형상 무장대들이 숨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 등이다.

일차적으로 무장대가 곧을로 도망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무장대는 직접 곧을동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곧을 근처인 별도봉 쪽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장대는 곧을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들 한

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토벌대들은 무조건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귀중한 생명을 수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죽이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논고도 없이, 최소한의 재판의 형태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만 하였다. 그리고 선조들이 일궈놓은 마을의 공동체는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그 마을은 아픈 역사의 저편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곤을동은 불타고

중산간 마을이 소개령에 의하여 해변 마을로 소개되고, 해변 마을에서는 마을을 완전히 둘러싸는 성 쌓기 공사가 벌어졌다. 이는 화북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마을이 그러했다. 화북에서는 연대 동쪽인 동부락과 벌랑(伐浪) 마을 어간 바다쪽에서 시작하여 관질을 가로질러 현 화북교회 부근을 통과, 서부락 넓은 밭 한복판으로 하여 동곤을 화북천과 바다가 서로 닿는 부근에 고려시대에 축조한 환해장성(環海長城)과 연이어지는 대장성을 쌓았다.

이 성은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락의 남녀노소 할 것없이 매일 동원되어 성을 쌓기 시작하여 3~4개월만에 마무리하였다. 성을 쌓은 돌은 성 주위 밭담 돌이었다. 무조건 밭돌을 가져다 쌓은 것이다. 성의 높이는 얇은 곳이 3~4m, 높은 곳은 5~6m 정도이고, 너비는 기반이 2m, 상부 1m 정도가 되었으며, 동문, 남문, 서문 세 곳에 문을 내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성 밖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여 성문을 굳게 닫았으며, 겨우 농사일을 하러 성 밖으로 나가는 정도나 허용하였으며, 성 위에는 약 100m 간격으로 초소를 만들어 첩창을 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지키게 하였다. 성 안으

로는 줄을 매어 깡통을 달아 잡아당기면 신호가 가게 하여 위급시 대비하였다. 성을 지키는 사람은 고작 노인과 15세 전후 소년이며, 인원이 부족하여 매일 근무하였다. 그런가 하면 중부락 종대 밑의 지서는 지서대로 주위에 성을 쌓았다. 700여년 전 삼별초군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해안가에 쌓은 환해장성과 연이어져 화북은 완전 성으로 둘러싸여진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하여 쌓여진 성은 4·3이 진압되면서 서서히 허물어 발담으로 원상 복구하기 시작하였다.¹⁸⁾

증언을 통해 당시 성안 생활을 잠깐 살펴보면,

기 들고 다녀었주. 기 꽃아 지서에서 경찰관들이 기 들어가라고 허가해줘. 5명이면 5명 허가주라고 우리가 신청했었주. 우리가 5명 사람의 인부 빌어가 니까 어느 지역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총쏘지 말아 달라해 가지고.

(안명호)

매일 막 지키러 다녔지. 폭도 오는가 해서 빙하게 성 쌓아서 막 지켜냈지. 곤을 태운 이후 성을 쌓았지. 성 쌓으니까 폭도들 올라봐 막을 지켰지. 교대하면서. 성 밖에 나갈 수도 없었지. 그러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 발은 성 밖에 있었는데 발에도 제대로 못 갔어.

(김모)

4·3 이후 역경의 세월

주민들의 공동체의 터전, 삶의 터전인 곤을동이 토벌대에 의해 짓밟히고,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옆 마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살벌한 그 시대에는 영문도 모른 채 잃어버린 터전을 보상하라고

18) 화북동 운영위원회, 앞의 책, 153~54쪽.

감히 외칠 수가 없었던 때였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도 그들의 손에 죽어갈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리라. 난리통에 살아난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여기고, 쥐죽은 듯 침묵을 지키며 다른 터전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극도의 잔인함과 추악함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다른 마을로 이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저 자신의 몸과 부양할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았었다. 그들은 인심 좋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날씨도 채 풀리기 전에 남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주변에서 움막을 짓고 겨우 추위와 바람과 비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돌을 몇 개 쌓아 놓아 그 위에 나무를 걸쳐 놓고, 그 바닥에는 짚이나 어육들을 깔아서 만든 움막집. 그 움막이란 것은 원시시대의 토굴보다도 든든하지 못했을 것이다. 20세기의 중반에 왜 꺾박받는 사람들은, 제주도민들은 원시시대보다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그 때를 직접 경험한 문계생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두 살 난 아기에, 세 살 난 아기에, 다섯 살 난 아기에, 일곱 살 난 아기에 아기 네 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풍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집은 불 붙여부니까 어디가서 살라고. 울면서 그 아기들을 업어서 저 마을에 가서 마루에 구석 조금 빌어 살았주. 따뜻해지니까 나가라고 해서 이제 여기 와서 돌 짚어저다가 나대로 집짓는 시늉해서 살았주. 시어머니, 시아버님 길에서 죽을까봐서.

이 할머니가 남의 집에 산 곳은 서부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가 화북에 살았는데 문간이라도 빌어서 명석 깔아서 살기도

하고, 방 빌린 사람, 마루 빌린 사람도 있었다 한다.

남의 집에 살다보니 당연히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례를 한 번 들어보자

허벅 빌려가면 허벅도 갠다고 아니 빌려주고, 아이고, 양동이로 물길어다 먹게 되었구나. 허벅 빌리면 허벅값 못 찾는다고 몸만 가서 돈 없으니까 그것도 안 빌려주어. 깨버리면 돈 없으니까 찾지 못한다고. 물에 갔다가 깨어 버리면 돈이 없어 몸뚱이만 남의 집 사는 사람이,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걸 받으라고. 안 빌려줘, 빌려 다녀보니까.

그곳에 술 빌어서 쌀 한 되 받아다가 죽을 쑤서 먹으며 살았지. 밀쭈시(밀 찌꺼기)도 부두에서 싸게 팔단고 해서 받아냈지. 아이들이 한 손가락 먹어봐서 먹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아니 먹었지. 그렇게 해서 이거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못 먹겠습니다' 했지.

따뜻해져서 이젠 영등달 나서 정월 넘으니까 이젠 다른 곳 빌어 가라고. 좁다고 친척 집이라도. 아기가 네 명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나까지 일곱 식구가 살아가니까 아들 하나 어명 하나 사는 집이라서 귀찮다고 나가라고 했지. 이젠 곤을 바닷가 옆에 가서 막지어 돌로 담 쌓아서 나무 걸쳐 어욱 배어다가 덮어서 독독독독 떨면서 살았지. 죽지 아니하니까 살았지.

할머니의 소개 직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이 없어 옆 마을 친척 집에 가서 사는데, 집의 한 구석에 전 식구가 모이져서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주인 집에서 좀 따뜻해졌다고, 좁다고 나가서 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 움막 집을 손수 지어, 떨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장사를 하기도 했다.

야채 장사는 그 후에 따뜻해서 남의 것 사서 팔았지. 남의 야채, 남의 밭에 가서 한 구덕(바구니) 사서 팔아 쌀 받아다가 아기들을 먹였지. 저 오일 시장,

매일 시장에 가서 팔았지. 길도 알그락 잘그락 이젠 시멘트나 했지만 시에서 캄캄해서 한 숨에 달려왔었지. 이젠 막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할머니 젊을 때 다리를 가볍게 써버리니까 관절염으로 돌아 못 고치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와서 누워서만 산다.

아이고, 그 고생하면서 살아난 얘기하면 절대 잠이 아니 든다. 시어머니, 시아버님 품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똥, 오줌을 몇 년 치웠지. 남들은 아이고 저 손 이제 썩어 이제 일도 못한다고 해도 그 똥 빨래했던 손 된장으로 씻어서 또 김매러 가고 고생하면서 살았지. 아기 하나는 죽어 버리니까 아들 형제, 딸 하나 세 명 있어.

나 혼자 살면서 그 아기들 셋 결혼시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옛날에 대상하고 소상하고 해도, 돈이 어려웠으니까 관도 못해서 그냥 가마니에 싸서 묻었지. 아이고 이거 아니 얘기할 말이지만 워낙 어려워나니까 먹을 것도 없어 밀쭈시(밀찌꺼기) 사다 다 먹어났어. 죽지 않으려고. 밀로 만든 것을 갈아서 체로 쳐서, 체 위에 것을 팔았지. 돈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다가 아기들 밥 해서 먹여 살릴려고. 밥을 하니 아기들이 안 먹었주. 먹어 지겠냐, 밀쭈시(밀찌꺼기) 돼지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 아이고, 그니까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길에서 죽이면 아기들, 손자들 크면 저거네 할아버지는 길에서 죽었다고 할까봐 돌 짊어져다가 고지가서 나무 나대로 짊어져다가 방 두 개 만들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방 하나에 시아버님 눕히고 우린 다른 방에 누워서 살았지. 이거 나대로 야채 장사 상추 장사해서 벌었지. 일본 가는 사람 팔단고 하니까 이 집을 샀지. 그런 저런 생각하면 원, 잠 아니 든다. 뭐 먹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런 죽을 고생을 해서 살아졌구나.

집타 버리고 숟가락 하나 안가져 왔으니까 어려운 거야 말할 게 뭐 있나. 요 새깁으면 거지나 마찬가지로. 입을 것을 입지도 못하고 신도 없어 계다짜이나 신고 했지. 먹을 것도 못 먹었지. 또 산간에서도 불태우고 하니까 이제만도 마구 들어와서 형편이 없었지. 곤을 불태우기 전에 산간 사람들 내려오니깐, 친

척들 찾으면서 내려왔지. 매일 막 지키러 다녔지. 집 불태우고 거기 있던 땅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지. 배고프니까 땅을 판 사람도 있었지.

나도 거기 뒷 해에 150명 4500원에 팔아 버렸어. 배고프니까 견디기 벅차니까 땅 산 사람은 옆 마을에 있는 사람이었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여. 그 집도 팔아 먹었지. 살려고 하니깐 밭도 팔아 먹었지. 배고파서 죽을 순 없거든. 자식들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밭도 팔아 버린 거지. 곤을에서 할머니하고 나왔는데, 그때 밀쭈시(밀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지. 동부두에 사러 갔지. 그것도 재수가 좋으면 사오고 재수가 나쁘면 사오지 못했거든. 더러운 애기 같지만 그것 먹어서 변을 불러면 아파서 변이 나오지 못했거든. 그것이 소화되지 못해서 그대로 나와 버렸지. 요새 사는 사람들 고급이라도 아주 고급이지. 손자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아 그때 라면 먹을 거 아닙니까?' 라면이 나오지 몇 해 되었나. (김모)

소개 직후 최대의 시련, 인간 한계의 극점에 도달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저력!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는 새로운 삶을 생성하였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 나가는 시점에서 소개되었던 마을 주민들의 옛 터전을 복구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현상은 소개된 마을들의 부분적 복구가 시작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곤을동에서도 그러한데, 그렇다면 복구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곤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안곤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고, 가운데곤을에는 두 가구가 살고 있으며, 동곤을은 다시 복구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동곤을도 소개 당시 다른 곤을과 마찬가지로 집이 모두 불타 없어졌지만, 4·3이 정리된 이후 동곤을에 터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다시 그곳에 일단 임시 방편으로 움막을 짓고 살아 왔던 것이다. 그것은 동곤을이 화북 서부락과 근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왜 안곤을은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을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풀어보자.

다시 어떻게 또, 그냥 집터들만 있어 어옥밭 되어버렸지. 다시 그 동네 어떻게 가서 살겠냐 그냥 내 버렸지. 여기서 살만해지고 해서 다시 그 동네에 가서 살 생각이 없었지. 내를 넘어간 동네, 내를 넘어야 그 집터에 갈 꺼니까. 그리고 다시는 무서워서 안 갔지. 그냥 집터를 내버리니까 어옥들만 가득 아무 것도 못했지. 다시 피해 볼까봐. 물도 막 떨어져 먹지 못하고. 안드렁물 길어가 먹었지. 가운데 동네 물통에 썰물일 때 달고, 밀물일 때 짜고 하면, 그곳에 있는 물 길어가다 먹고. 이젠 가서 보니까 물통에 모래가 가득.

이 정황으로 봐서 안곤을이 전혀 복구가 안되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시 비가 올 때면 하천의 물이 불어나서 건너가기도 힘들어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갈 정도였다고 한다. 둘째로 소개의 피해를 입었으면서 별도봉 근처라 다른 마을과 외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피해를 볼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먹는 물이 멀리 있어 힘들게 길어가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안곤을은 아예 복구가 안되었던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곤을동 주민들의 고난이 있었을 때 그러한 시기에도 한 가지 마음 푸근한 일이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화북 서부락 주민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일이었다. 바로 그것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무료로 나눠 주었던 것이다.

곤을동이 불타고, 남의 집 더부살이도 못하게 되자 움막을 지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을 안쓰럽게 여겨 화북 서부락 마을에서는 마을 땅인 공지(1,000평 이상)를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다. 그 땅은 당시 아기 무덤이 많았는데 곱게 이장시키고, 20명 이상 되는 사람

들에게 나누어 줬다 한다. 그 땅을 나눌 때에도 공평하게 한다고 제비뽑기까지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눈다고 해도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나쁜 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땅을 얻은 사람 중에는 개간하기가 어려워 그냥 두고 온 사람도 있었다. 이 땅은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아 살고 있다.

그 때 그 땅을 얻은 사람들은 김신봉, 김창현, 문계생, 안명호, 오종삼, 문여송, 강천수, 김계문, 이삼성, 김희좌, 김완중, 김달현 등이라고 한다.

오늘 다시 그려보는 곤을

지금 곤을동을 찾아 가보면 안곤을에는 전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빈 집터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집 형태도 알아 볼 길이 없다. 그저 집터에 남아 있는 돌의 흔적을 보면서 대강의 윤곽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

돌담이 있는 터로 짐작하건대 문계생 할머니의 말대로 22가구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집터들을 자세히 둘러보면 군데군데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 흙과 돌 틈에 박혀져 있다. 그리고 벽으로 짐작될 수 있는 흙벽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집터도 있었다. 또한 굴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었으며, 안곤을 마을 중간에는 말방아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말방아가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처음 몇 번 왔을 때는 찾지 못했는데 사진을 찍으러 같이 갔던 일행이 나무 숲 우거진 그곳을 발견했던 것이다.

어떤 집터는 땅이 아까워서인지 손수 나물을 키워 먹은 곳도 있었다. 시장에 파는 나물처럼 실하진 않았지만 옛 할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는 소중한 곤을동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다가 함께 갔던 일행이 대포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추정하건대 아마 일제 때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느 때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였던



◀ 마을 사람들이 쓰던 항아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4·3 이전에는 발견이 안되고 이제야 발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발견에 새삼 기쁨을 느꼈다.

안곤울의 남쪽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빈 밭이었지만 밭을 갈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곳을 조사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지계에 무언가를 지고 나르는 듯하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할아버지는 어렸을 적부터 정신지체자였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집에서 여러번 곳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 그대로 지냈었다. 그러다 곤울동이 소개되어 집터가 불타고 옆마을에 가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그를 돌봐줄 부모님마저 늙어 돌아갔다.

그는 정신이상자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끔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친척들도 더 이상 그를 돌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곤울 옛 집터에 움



▲ 폐허에 남아 있는 굴목(방에 불을 피우도록 만든 아궁이).

막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리하여 그는 혼자 안곤을 밭 안쪽에 살고 있다. 이불도 태워 버리고 없어 그냥 돌바닥 위에 지내다가 시청에서 장만하여 갖다 주기도 하고, 쌀도 받아다 주기도 하였다. 다시 그 터에 찾아 갔을 때는 그가 팽이로 밭을 갈고 있었다.

가끔 낚시꾼들이 찾아드는,
가끔 동네 장난꾸러기 꼬마들이 와서 놀곤 하는
안곤을 옛터
지금도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옛 주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운데곤울은 동곤울과 안곤을 사이에 있으면서 하천을 끼고 있는데, 지금은 두 집이 자리잡고 있다. 한 집은 원래 제주시 사람이 지었

는데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아 적적하다고 가버리고 지금은 성산포에서 온 노부부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 옆에는 다른 사람이 개사육장을 해놓고 때때로 와서 먹이를 준다고 한다. 한 집은 바로 동곤을 가는 길 옆에 있다. 가운데곤을은 안곤을처럼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고 돌담이 무지기 피어난 역새와 어우러져 있어 정확히 그 터를 알아 볼 수는 없었다.

동곤을은 지금도 약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20세기를 살아간 역정 — 문계생 할머니

봄을 잉태한 채 줌처럼 그 봄의 파스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해 겨울. 그 겨울의 매서운 찬 바람을 안고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을 찾으려는 조사반은 화북의 노인당 '연수각'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많은 할머니들께서 남은 인생을 위로하고자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르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곤을에 살았다고 하는 문계생 할머니를 찾아 냈다.

20세기 초반 한반도가 일제의 마수에 넘어가고 있을 무렵, 1913년 가을 지금의 제주시 아라동 문씨 집안의 한 아낙은 갑자기 오는 통중에 배를 그러쥐어 안았다. 얼마 후 또 하나의 시련을 예고하는 여아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는 지친 몸이지만 맑은 미소를 띠며 그 아이를 받아 안고 누웠고, 어린 형제들은 신기한 듯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그 여자 아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축년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계생이라 지었다.

본래 문씨 집안은 아버지쪽으로 열 두 형제의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당시 아라동에는 문씨가 많았다. 한 번 명절을 지내면 방상이 많아서 저녁에 불을 켜놓고 할 정도였다. 집안 형편은 밝이 여러 필지 있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이렇게 그가 아무 탈없이 자라 다섯 살이 되던 바로 그 해 어느날이었다. 그 날은 이른 아침부터 야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웬지 기분 나쁘게 어머니의 귓전에 맴돌았다. 아침을 간단하게 요기하고 어머니는 오라버니 집으로 향했다. 상집에 들어서니 아는 얼굴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사람들은 장발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채비가 끝나자 몇몇 사람들은 산으로 향했다. 울케 언니 묻고 내려오는 길을 까마귀가 울며 배웅하고 있었다. 까악 까아악 까아악.

그후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병은 다름아닌 그때 유행하던 전염병이었다. 울케에게서 병이 옮았던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하지 못했다. 저승은 그렇게 어머니를 옥죄며 다가오고, 아무 약도 쓰지 못한 어머니는 하루하루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 얼마 안 있어 숨을 거둔다.

철모르는 어린 남매들은 어머니의 죽음조차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야 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잠시 긴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이후부터 문씨 집안에 불행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다음 해에 밭상은 아니지만 눈매가 날카로운 한 여자와 재혼을 한다. 그 여자는 첫 번째 여자가 남기고 간 자식들을 매우 달가와하지 않았다.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그렇게 전처 자식들에게 미운정을 주며 살아 갔다. 그러던 와중에 친 오빠 두 명도 병으로 죽어버린다. 그리고 소녀는 외톨이로 세상에 남겨진다.

새어머니는 소녀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매를 들었다. 매를 들 때도 사람으로 생각하여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 몰듯 아무렇게나 손가는대로 후려치곤 하였다. 부지깽이로 아무데라도 때리면 매에 못이긴 어린 소녀는 성할머니한테 가서 울면서 하소연하였다.

“할머니, 새어머니 미워마썸.(미워요) 맨날(매일) 때리기만 하고.”

“경해도(그래도) 잘 참양(참아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한테서 밥을 얻어먹고 누웠다 오곤 하였다. 성할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함부로 나무라지 못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간 손주에게 다 가을 고통이 더욱 심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어머니 밑으로는 아들 삼형제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 또한 자신의 어머니처럼 배다른 누이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남동생이 “계생이는 못생겼지롱”하고 헛바닥을 내밀었다. 그러자 소녀는 화가 나서 달려가 꿀밤을 한 대 먹였다. 그랬더니, “엄마, 계생이가 막 때려.”

“너 이년! 이리 와봐.”

새어머니 밑에서 살다보니 집안의 대부분 힘든 일이 그에게 맡겨졌다. 물을 내에서 길어다 먹었는데 새어머니는 소녀를 시켜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물을 길어 오라고 하였다. 동네에서는 ‘막은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냇물을 길어다 먹었다. ‘막은내’ 가는 길이 비록 멀고 험하여도 새어머니한테 안 맞으려고 물을 길으러 갔다.

특히 한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그 일을 해내야만 했다. 물이 팡팡 얼면 큰 돌맹이를 가져다가 퍽 소리가 나도록 세게 던졌다. 시린 물을 허벅에 담아서 구덩에 놓아 깊어지면 등어리부터 얼기 시작하여 얼마 안 있어 몸 전체가 싸늘히 식어갔다. 여덟 살부터 사기병으로 깊어지기 시작하여 조금 더 커서는 허벅을 깊어져 다녔던 것이다. 초신을 신고 다녔으니 신이 젖으면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였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어가야 살 수 있었다.

새어머니는 밤에도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낮에는 방아를 찧거나 밭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름에는 조나 콩, 보리, 메밀밭의 김을 매게 하였다.

탕전¹⁹⁾ 만드는 일에도 밤낮으로 시달려야 했다. 탕전 하나에 열냥을 받

19) 사대부의 관모의 하나인 탕전(宕巾)은 말총으로 결는다. 보통 망건을 두르고 나서 탕전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쓰는 게 관례다. 탕전은 머리피 모습으로 된 망건과 함께 형용어지기 쉬운 머리카락을 감싸고 상투를 가리는 기능과 더불어, 그 위에 얹어쓰는 갓의 밑받침 구실을 한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계층에서는 의관에 대한 유교적 관습에 따라 평상시에도 탕전을 쓰는 게 당연한 도

았으므로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되었던 것이다. 새어머니는 밤새도록 소녀에게 탕건을 만들게 하였는데, 정작 자기는 친자식들과 누워서 그것을 감시하였다. 소녀의 눈꺼풀이 무거워 눈감고 뜨는 사이가 길어지면,

“야! 이년아, 졸지 말앙(말고) 빨리 해라이.”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든다.

당시에는 전기도 없어 등피불(석유기름으로 만든 불) 켜서 탕건을 만들었다. 한 개를 만들려면 밤낮을 해서 5일 동안이나 걸렸다. 며칠 동안 애쓰게 해서 만든 탕건은 새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 돈을 챙기곤 하였다.

• 탕건 타정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젊어서 청춘엔 놀자 놀자

젊은 청춘에 놀자 늙어지민 못 노나니

• 검질 매는 소리

이 검질매영 이 사대

어느 제민 앞명에 동기코

아이고 이 검질 어느 제민 다 매여지코

리로 여겨 왔다.(제주도, 『제주의 민속 Ⅱ』,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994)

탕건 제작 ① 도구 → 쳇내기: 탕건골을 닦아 무릎 사이에 안고 작업하는 틀. 건골:탕건 모양으로 깎은 나무토막. 이외에도 마호레·털망·박죽·뚝·연발·정술·탕건바늘·알통골 등이 있어 작업에 따라 쓰인다. ② 재료 —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말총과 정술 등의 가는 실을 사용한다. ③ 공정 — 제작과정은 크게 짜는 일, 삶는 일, 제골하는 일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짜는 차례는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짜나가며, 그렇게 짰 다음, 세로로 감칠질을 하는데, 이 과정을 ‘서인다’라고 한다. 제골하는 일은 먹칠하고 정제하는 작업이다. ④ 종류 → 줄살린 탕건, 막줄탕건, 줄진 탕건 등은 상품이다. 중탕건은 중품이며, 엉근탕건은 하품이다.(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 ⑨ 화북리』, 반석, 1990)

새벽에 닭이 ‘꼬끼오’ 하고 울면 아버지가,

“죽은 년 일어난 밥허라.”

그러면 새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하고 점심을 싸서 지금의 전문대가 있는 출발에 소와 말을 이끌고 출을 배려 갔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눈물을 밥으로 먹으면서 살아갔던 서러운 어린 시절을 마감하고, 그가 열여덟 되는 해에 화북 안곤을 김씨 집안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후 아버지는 예순 되던 해에 돌아가고, 새어머니는 자식들을 데리고 평양 절간의 스님과 다시 결혼한다. 그 후 아들 삼형제는 역시 병으로 죽고, 새어머니도 몸에서 진물이 누렇게 흘러 내리는 더러운 병으로 죽는다.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라 바다를 모르고 살다가 해변 마을로 시집오니 낮설고 물설었다. 안곤을에 시집가서 첫 아기를 낳고, 남편은 일본에 가서 살아 그도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살기도 하였다. 바다가 바로 집 앞에 있었지만, 산 쪽에 살다 보니 그곳에 사는 다른 여성과 달리 물질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기는 구덕에 눕히고 밤낮으로 탕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루는 아기를 낳은 뒷날 안드렁물을 길으러 갔다가 돌을 잘못 밟아 미끄러져 이마가 깨졌는데, 집에 와보니 치마에 핏덩어리가 뭉클뭉클 흘러 내렸던 일도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4·3이 있었고, 48년 음력 12월 7일 남편은 군인들에게 죽게 된다. 그날 밤 꿈에 남편이 검은 잠바를 입고 집 앞에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가는 모습을 그렇게나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곤을동마저 소개되어 집이 불에 타버리자 어린 자식 네 명에 풍 걸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살았다.

눈치밥을 먹으며 살던 것도 잠시였다. 땅이 없어 바닷가 옆에 터를 잡고 지금의 제주대학교까지 가서 지게로 겨우겨우 나무를 해다가 돌을 쌓아 움막을 지었다. 시부모님이 길에서 돌아가실까봐 고지까지 가서 나무

해다가 집을 지었다. 겨우 비와 바람막이를 할 수 있었던 움막, 피곤해 눈을 붙이면 추워서 다시 깨어난다. 그리곤 바들바들 떨며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고 때서운 밤을 견뎌야 했다.

풍결린 시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상을 치르고, 그러던 후 화북에서 공지 임야 일부를 무료로 얻어 집을 지어 살았다.

날이 밝아오면 아기를 업고 바다에 가서 김을 긁어다가 말려 일본 사람에게 비누와 실, 바늘, 성냥 등으로 맞바꾸어 사용하였다. 또 촌에 가서 팔기도 하였다. 그리고 야채장사도 하였는데 구덕으로 두 개 팔아 보리쌀 다섯말지기를 사와 자식들에게 먹였다.

밭에 조를 갈아서 먹었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혼자 낮으로 밤으로 조를 베어 말렸다. 가난 앞에서는 무서움도 사그라질 수밖에. 그것을 도리깨로 두드려 체로 쳐 널었다가 말려 방아에 가서 사람들과 수눌어 지어다 조밥과 죽을 해서 먹었다. 땀감은 나무가 없어 어옥, 늙은 고사리를 베어다가 말려 사용했다.

그리고 세월은 땀감이 타들어가듯 흘러가고.

• ㄹ래 고는 소리

이어도 ㄹ래 이어도 ㄹ래 ㄹ래 놀래

언제민 이 ㄹ래 고라지코

이제 할머니는 노인당에 가서 하루 일과를 보낸다. 주민들이 쌀과 라면을 갖다놓아 점심은 노인당에서 해결한다. 노인당에는 할아버지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4·3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4·3 이후 여자들 중심으로 폐허로 남겨진 삶의 터전을 굳센 의지로 다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돈이 아까워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비녀를 쫓고 다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들의 성화로 최근에야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



▲ 문계생 할머니. 주름진 얼굴에 파란의 역사가 배어 있다.

“이제 삶은 호강이라”라는 말에 마음이 숙연해진다. “나 땡길(나다닐) 때 죽어사 허컬” 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할머니. 옛날 일 생각하면 잠이 안 든다는 할머니. 할머니의 가슴은 이미 이승이 아닐는지 모른다.

▲ 4·3 때 곤을에서 희생된 분들

고성환(17[8], 남), 고용생(高用生, 24, 남), 김광백(25, 남), 김금순(金今順, 19, 여), 김기만(金起萬, 40, 남), 김대현(19, 남), 김두규(金斗圭, 27, 남), 김봉두(金鳳斗, 22, 남), 김순현(金順賢, 21, 여), 김자윤(金子允, 50, 남), 김쟁현(27, 남), 김정(金正, 21, 남), 김희봉(金熙鳳, 30, 남), 신경근(愼庚根, 19, 여), 신창근(愼昌根, 29, 남), 신호근(愼鎬根, 24, 남), 안응빈(安應彬, 25, 남), 안치경(安治京, 22, 남), 안치수(安治銖, 54, 남), 안치용(安治鎔, 52, 남), 안치흠(安治欽, 36, 남), 안홍근(安弘根, 22, 남), 양치명(梁治明, 22, 남), 이기봉(李起奉, 19, 여), 이기용(18, 남), 이기화(23, 남), 이덕오(李德五, 50, 남), 이시성(남), 허흠(許恰, 37, 남) 등

글을 접으며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쓰라렸던 술한 세월에 묻혀버린 마을의
아름답고 그리운 이름 곤을동
멜 후리는 소리 정겹던 그 때가
아득히 다가온다.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 해매면서 왜 우리가 지금 사라져 버린 마을을 다시 찾아다녀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잃어버린 마을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곤을동을 찾아 다니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40대 중반의 한 분을 만났다. 4·3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였지만, 이제 와서 그 역사를 들추는 것은 남아 있는 후손들에게는 더없는 아픔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진상이 밝혀져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잘 알고 지내던 후손끼리 서로 원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4·3 진상 규명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단지 누가 누구를 죽였는가에 있지는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4·3이 일어나야만 했고, 진압(토벌)에 대한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4·3 명령들의 원한을 풀고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한을 풀고자 함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생기지 말기를,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분명 4·3 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서 4·3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지금까지 찾아낸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

다.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시간나는대로 찾아봤지만,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노력이 부족한 속에서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힘들었다. 비록 기한이 되어 일단 마감하지만 기회가 닿는대로 계속 곤을을 찾아 나설 것이다.

바닷바람과 함께 어우러져 날씨가 몹시 차던 날, 곤을 앞 오름에 앉아 곤을동을 내려다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상상에 젖어 들었다. 1948년 음력 12월 6일. 해도 지지 않았는데 하늘과 바다는 별칭게 물들고 있었다. 토벌대들은 젊은 남자들을 잡아 앞바다에 세워놓고 총질하고, 초가집들은 미처 날뛰는 불에 못이겨 스러져 가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이승과 저승은 한순간에 선택되고, 눈물이 나올 겨를도 없이, 살려는 욕망이 그 때 만큼 강했을 때는 없었으리라.

그리고 다른 화면이 겹쳐졌다. 마을 중간에 말방아터에서는 아낙네들의 흥겨운 말방아 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철모르는 아이들은 맨발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갈밭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앞 원에 남아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헛 나래짓만 하고 있다. 달도 없는 밤에는 햇불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고, 힘이 넘치는 멜 후리는 소리는 다부지게 곤을을 감싸 안고 있었다.

끝으로 곤을의 옛 어른들이 즐겨 부르던 멜 후리는 소리를 적어 본다.

어허 능창 제기(빨리) 오라 멜
흔저 제기 거리게
어허 능창 제기 오라
이눔우 후리

동까지 동기라(동쪽을 더 당겨라)
서까지 동기라

엉~허야 뒤야 / 엉~허야 뒤야
어기여뒤여 방애여 / 엉~허야 뒤야
동깨코라근 등곶은여로 / 엉~허야 뒤야
서깨토라근 소여콧들로 / 엉~허야 뒤야
당선에서 땔발을 보고 / 엉~허야 뒤야
망선에서 후림을 노라 / 엉~허야 뒤야
.....

앞괘기랑은 선진을 놓고 / 엉~허야 뒤야
뒷괘기랑은 후진을 노라 / 엉~허야 뒤야
배에터위 놈덜은 / 엉~허야 뒤야
.....

우리 옛조상덜 학단 일은 / 엉~허야 뒤야
잊어불지 말아근 뉘살려보자 / 엉~허야 뒤야²⁰⁾

20) 최창봉, 『한국 민요 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